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답을 기대하지 않는 설득력 있는 질문들을 연이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 말했을 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거의 대부분 기적의 역사들을 보이므로 그들이 사도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 중에서 행한 일들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사도직에 대한 나의 증인들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나의 살아있는 사도서신들입니다. 거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거기에 있을 동안에 행했던 일은 명백히 나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하는 나의 대답은, **3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로부터 바울이 받은 편지에는 분명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몇 사람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안수함으로 사도직 계승을 전하는 교리나 전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 교회나 에피스코폴 교회가 이것을 큰 문제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할 때, 주교들이나 장로들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에게 안수한 그 주교는 그의 주교에게 안수 받았으며, 또한 그 주교는 그의 주교에게 안수 받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 계승의 안수는 도미노와 같은 연쇄 반응처럼 거슬러 베드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계승이 베드로에게서부터 당신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 기름부음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묻기를, 누가 당신에게 사역하도록 권위를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몰몬교 사람들은 오직 그들만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만이 참된 교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도 12 사도들이 없는데, 그들은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들만이 교회의 성찬을 집례할 사람을 안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몰몬교의 12사도들에 의해 안수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자격도 없고 교회의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계승의 안수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누가 이러한 것을 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교회의 성찬을 집례하도록 떡을 떼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요한에게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침례를 줄 권한을 주었느냐? 그들은 또한 예수께 묻기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나의 대답도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도가 되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대답은,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박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갈 때는 그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들에게 온 사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그의 아내,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와 같이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습니까? 주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 그들 역시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었습니다. 물론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며, 결혼하여 아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이 사역하는데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원을 받을 권한이 없겠습니까?

7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누가 그 자신을 위해 돈을 내겠느냐? 군대에 가면 전쟁에 임하도록 모든 훈련을 받는데 정부에서 다 지불합니다. 군에 입대한 후 신병 훈련과, 상병 훈련 등을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군인이거나 해병이거나 공군이라는 사실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대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았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군이 그 삿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당신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다면 그 포도원의 열매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떼나 염소떼를 기른다면, 당신은 그 염소의 젖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밀알을 타작할 때에 그들은 타작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밀을 편편한 바위 위에 놓고 이 기구를 소의 뒤에 묶어 소로 하여금 그 기계를 끌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 밀의 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는 밖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는 그 밀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하나님께서 단지 소들만 보살피십니까? 하나님께 소들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까?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다른 말로, 너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너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며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은즉,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 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두들)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지원키 위해 돈을 보낸다면 나 역시 너희들에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바울은, 너희가 나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권리를 사용치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의해 드러질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은 태워지고, 그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진설병을 진열했을 때, 그 드러진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제단에 드러졌던 것들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일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5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나를 지원해 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원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그에 대하여 잘못 말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5전 동전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수고를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도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부터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에게 거저 주러 왔으며, 성기러 왔지 성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면 항상 지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에 대하여 들 때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편지와 미리 주소를 적은 봉투를 함께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후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원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역은 성기려하고 후원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자유로이 너희에게 성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나는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값없이 성길 수 있고 사역을 지원하는데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아도 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을 성길 수 있고 우리의 지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하나님)는 굉장한 부자이십니다. 그 분은 나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 분을 성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자유롭게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안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주거나 나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17년 간 바울처럼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내 두 손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했을 때 처음 2년간은 가족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 밖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고, 항상 우리를 보살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일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역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안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온갖 일들을 다했습니다.

나는 장례회관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 첫째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장의사에서 허드레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독창 부르는 자가 필요할 때 나는 노래를 불렀으며, 설교자가 필요할 땐 설교를 했고, 화관 차를 운전했습니다, 가정용 차도 운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밤 중에 나가 시체를 가지고 와야 했고 나는 시체 하나 당 5불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화가 필요했을 때, 종종 한 밤 중에 전화를 받고 시체를 가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주님! 우리 아이의 운동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차 사고가 일어나 나는 서너 시체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때는 우리는 정말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방법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쉽게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척 스미스는 월급도 많이 받고 보험도 좋으니 누군들 그 사역하기를 싫어하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의 반 정도는 나는 가족의 필요를 공급키 위해 일을 했어야 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내가 당연히 하여야 할 책임을 다했고, 아무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를 섬긴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16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바울은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광도 아니요,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즐겼던 어떤 것이 아닌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부득불 한 것이었습니다.

18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 사도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와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값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값 없이 줍니다! 나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19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말은, 나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을 의존치 않고,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지를 압니다. 나는 나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메이지 않았습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지원함으로 인한 어떤 메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 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갈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격한 유대 율법에 따른 음식물인 코셔(Kosher)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안식일 음식법을 따랐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유대교주의 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율법 없는 자에게는(즉,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덕상의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법을 따라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먹는 것이 율법에 의해 구별된 음식인지(Kosher) 아닌지를 생각지 않고 무엇을 먹든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그들의 슬어를 말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과 동일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종이 되어 나를 여러 환경에 적응시킴은,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얻고자하는 갈망 때문이라.

23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니라!

24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보스톤 마라톤 대회 시작은 불만입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날 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경주를 끝낼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쓰여진 티-셔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험사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겨우 몇 마일만을 달리고는 떨어져 나와서 티-셔츠를 받아 입습니다. 수 천 명으로 시작된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는 다만 한 사람만의 우승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열심히 훈련하고, 그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우승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경기를 위해서 그 자신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할 동안 그는 이 경기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는 날, 경기가 시작되는 날, 나는 이길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가해진 모든 훈련과, 운동과, 단련과 고통, 즉 아플 때까지 달리고 또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달려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을 때까지 달리고 난 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한 것은 이기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하자면,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경주는 하지만, 경기에 이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진정한 훈련이나 단련도 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단지 경기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그만 낙상에 그 경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별도의 짐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올림픽 경기에서 100미터 경주를 뛰게 되어, 경기 준비자세를 취하는 곳에 카우보이 구두를 신고 나왔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카우보이 장화를 신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볍고도 경기용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견인력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지 13온스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경기용 신발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히 무거운 외투나 가방을 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는 데 온갖 쓰레기 짐들을 신고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경주를 온갖 짐들을 잔뜩 신고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즉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말하기를, (빌립보서 3:14) 나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기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기도록 달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주에서 뛰지만 오직 한 사람 만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리십시오.

25이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이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수위(首位), 우승'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씨름을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 올림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운동에 관련한 유사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스포츠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바울이 스포츠에 관해 익히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올림픽에서 씨름을 위해 훈련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합니다. 그 말은, 그들은 많은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에 조심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몸무게를 조종키 위해 엄격한 훈련을 해야하고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 올림픽에서, 만약 당신이 올림픽 씨름 대회에서 이겼다면, 당신은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명인이 되었을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 와!’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나오면, 그것은 재정적인 상이 아닌, 월계수 화관이거나 소나무 가지로 엮은 화관을 당신의 머리에 얹어줍니다. 겨우 소나무 화관을 머리에 받으려고 그 모든 고통과 훈련과 단련을 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를, 그들이 단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 모든 훈련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록 소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은 얼마 가지 않아 갈색으로 변할 것이고, 그 소나무 침엽은 곧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나무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운동과 훈련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훈련을 기꺼이 해야하겠습니까?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하기 위해 이 경주에 들어오십시오. 우승자가 되는데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할 것이고, 우리는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그의 경주를 거의 끝낼 무렵, 그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서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는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받기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26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것은, 바울은 우승하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달리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그만 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경주에 이길 것이고, 나는 있는 힘을 다 해 할 것이다! 나는 이 경주에 나의 전심전력을 다하리라!

그러므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림자를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아니하고) **27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은, 나는 단련된 삶을 살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싸우고, 당신을 지배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육신과 육적 욕심에 의해 지배되어 지거나 아니면 성령과 당신의 영적 소욕에 의해 지배되어집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되든지 아니면 육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됩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내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로 내 자신을 충족시키며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훈련을 시종일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므로 영적 훈련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을 읽는데 훈련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기도 생활도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그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리 위에 앉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애를 지배합니다. 육신에 의해 지배될 때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즉 항상 육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육신의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육체적 욕구, 즉 몸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도 역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일들, 즉 하나님과 나와와 관계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조언과 충고를 구하며, 주님의 교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나는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몸을 복종 아래 두기 위해 사실상 몸을 쳐 그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진짜 싸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실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도록 몸을 쳐 복종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복음을 전파한 후, 만약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면 나는 버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헬라어로 adokimos란 '인정되다'란 뜻입니다. 신약에서 여러 곳에 이 adokimos 란 단어는 인정되다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입니다. dokimos 앞에 "a" 자를 붙이면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영어에 non 접두사를 부치므로 부정문을 만들 듯이 헬라어에는 a가 부정 접두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theos 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a 가 붙으므로 atheos, 곧 (atheist)무신론자가 됩니다. gnosko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 안다는 gnosko 앞에 a를 부쳐 agnosko 곧 알지 못한다가 됩니다. 것처럼 인정되다의 dokimos 앞에 a를 붙이면, 인정받지 못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경주에서 실격이 될까 혹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중대한 것이었고, 또 바울은 그것에 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헌신으로, 그는 그저 놀러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위해 이 일을 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자신의 손으로 노동의 수고를 했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위해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켰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가 돈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부양키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쁘게 여겼으며 사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rvine Meadow에서 있을 금요일 선교의 날 밤에 우리는 헌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할지라도 헌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금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걷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줄 수 있고 또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기금을 위하여 수 천 명의 사람을 모아 놓고 이러한 선교 활동을 한다고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했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기려고 달음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보상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던 수고에 대해 상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값없이 주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섬기며, 사랑의 손으로 다가가서, 서로 돕고 살며,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소서. 주님께서 종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경주를 게으른 태도로 달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심하여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